

전남도, 전국체전 ‘개·폐회식 연출자문위’ 출범

연출·문화예술 등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 김지사 “올림픽 버금가는 감동 무대” 당부

전남도는 2023년 10월 목포 등 전남에서 펼쳐지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2일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연출자문위는 김영록 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 분야 6명, 기획연출 분야 3명, 음악 분야 2명, 무용 분야 2명, 문화예술 분야 1명, 안전 분야 2명, 방송 분야 2명, 의상디자인 분야 2명, 문학 분야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 15명의 외부 전문가는 전국 공모와 내부 심사로 선정됐다.

연출자문위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끝나는 2023년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개·폐회식 연출 기본방향, 세부실행

방향에 대한 검토·자문과 행사준비 협조체계 구축, 각종 개·폐회식 아이디어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자문위는 이날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연출자문위원들은 “개·폐회식에선 전남의 역사·문화, 친환경, 첨단과학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전남을 보여주지 위해 기존의 연출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선수단과 관객 모두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며 “전남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긴 문화체전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의

무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세계와 경쟁하는 위대한 전남의 역사와 문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자”며 “특히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개·폐회식은 전국체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요한 이벤트”라며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개·폐회식 연출뿐만 아니라 체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성공적 전국(장애인)체전 준비를 위해 앞으로 종합상황실, 홍보, 경기장 안내, 의전·자원봉사, 임·퇴장 관리 등 17개 분야별 집행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2023년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2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정무창 의장 “원활치 못한 인사교류 안타깝다”

반쪽짜리 인사권 그쳐...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제309회 임시회 개최를 통해 “9대 의회 첫 임시회를 마치며 폐회사에서 ‘소통’과 ‘현장’이라는 2가지 키워드를 강조한 바 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의회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인사권에 그치고 있고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서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러한 한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적극 행정과 소통으로 극복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강기정 시장도 제9대 의회 개원 시 시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역사시대의 자세로 양 기관이 상호 배려하는 가운데 협력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박희을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대상 늘려야”

박희을 광주시의원은 22일 “광주시 공공기관의 공정한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8개 기관 만이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부분 공공기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기관장을 임명하고 있다”며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인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인사 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형을 방지하고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평가단 확대와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지향이 배제돼야 할 중립적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당연한 정치적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연관제를 인정하면 안될 문제”라며 “강기정 시장은 능력 있는 인사가 발탁될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선강 기자

서임석 “백운지하차도 주민 의견 수렴을”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22일 “백운지하차도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공사를 신속하게 완수하든지, 전면 백지화를 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운광장 상가변경회와 인근 주민들은 지하차도 설치로 상권 침해와 함께 침수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변 상인들과 시민 모두가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민들이 우려



하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 파악과 조속한 해결 ▲지하차도 건설로 인한 기대효과와 조사 자료 시민 공개 ▲침수 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에 맞는 안전한 설계·관련 사고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현재 백운고가 철거를 완료하고 7번이 넘는 주민 설명회를 거치며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정을 5%에 머물고 있다. /박선강 기자

정다는 “합리적 예산 편성·효율 집행 필요”

정다는 광주시의원은 22일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나은 광주를 위해서는 민생 경제, 시민 안전과 같이 당장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급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업이라도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이라면 광주라는 공동체를 위해 가까이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찾지 못해 빚을 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예산을 이미 배정받았거나 신규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라면 과감하게 후일로 미뤄달라. 그렇게 해서 광주가 빚을 덜 수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서 빚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익사이팅 관광도시 조성” 광주시 유관기관 회의

광주시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65일 재미있고 활력 넘치는 도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시 협업부서와 자치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관광재단, 광주문화재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 내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창의적 발상을 통해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익사이팅 관광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회의를 마련했다.

관광시장 다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광주만의 고유 관광콘텐츠·기반 확충 ▲MICE 관광산업 육성·관광객 편의 정책 ▲특색 있는 지역인프라 관광 명소화 ▲다채로운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 등에 중점을 두고 관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광주시 전 부서와 유관기관의 관광 마인드 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관광 전략을 수립하고 시 관광자원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7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파나소닉 안마의자 출시

EP-MAC9

전문 마사지사의 손놀림을 완벽하게 재현한 섬세함을 구현하다!

파나소닉 안마의자만의 풍부한 테크닉을 갖춘 4가지 자동 마사지 프로그램과 긴장을 풀어주는 무중력 스윙 모드로 일상의 지친 심신을 마사지로 빠르게 회복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